

2022년 6월 12일 “예수님의 비유(1) 씨뿌리는 자” (마 13:1-17)

비유는 실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기도, 용서, 종말의 마지막 날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비유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겠습니다.

[1]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 절)

11-13 절(읽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 깨닫는 자들과 못 깨닫는 자들을 암시하십니다(14-15 절 (사 6:9-10 인용) -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

인간이 어찌하여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시 115:4-8 은 우상의 특징에 관해 말합니다. (참고: 시 135:15-18) 주님은 우상은 형태만 있을 뿐, 말 못하고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며,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과 같이 되고 맙니다.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으려면 삶의 전환(회개)이 요구됩니다. 제자들처럼 비록 미숙해도 주님을 따라서 살거라는 회개와 결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씨뿌리는 일

13:3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또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씨들은 길 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곡식이 자라기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네 종류의 땅을 언급하십니다.

각각의 땅의 의미는 19-23 절에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좋은 밭이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배우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네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는 곳과 맺지 못하는 곳을 대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잘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할 지를 말해줍니다. 이에 따르는 두질문이 있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누가 길가 마음, 얇은 흙 땅의 마음, 가시 떨기 마음을 가졌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 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좋은 밭으로 기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입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읽기와 묵상과 성찰,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 밭을 기경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밭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면의 충족과 즐거움을 느끼며 미래에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데 애쓸 때 부어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설명을 읽고(19-23 절), 내게 해당하는 영역이 있으면 적어봅시다.
2. 나는 좋은 밭의 마음으로 기경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에 애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